

EU와 NATO의 균열을 노린 러시아의 소프트 전략과 동유럽의 선택

김철민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대학

■ 주요 내용

- 러시아와 슬로베니아는 지난 7월 30일 양국 간 정상 회담을 통해 EU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해결 모색을 촉구
- 이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슬로베니아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EU 제재와 NATO의 압박을 풀기 위한 ‘소프트 전략의 출발’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 향후 러시아는 그동안 EU와 NATO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하던 ‘하드 전략’을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국을 향한 EU 제재를 풀게 하고 NATO와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EU와 NATO의 균열을 노리는 ‘소프트 전략’에 보다 치중할 것으로 예측

1 이슈 현황

7월 30일(현지시각), 슬로베니아를 찾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파호로 슬로베니아 대통령은 EU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해결 모색을 촉구

- 7월 30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올해 5월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 EU 방문국으로 슬로베니아를 선택
 - o 세계 대전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추모식에 참석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파호로 슬로베니아 대통령은 양국 간의 돈독한 관계를 과시
 - o 더불어 이들은 러시아를 겨냥한 EU의 제재를 풀고, EU와 러시아가 서로 협력할 시점이 되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 매년 7월 말 슬로베니아에서는 세계 대전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러시아군과 포로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려왔음.
 - o 2015년에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행사에 참석
 - o 이번 행사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은 추모비 제막식에도 참여하면서 슬로베니아와의 우호를 더욱 다지고자 노력
- 양국 정상은 행사 참석차 이동 시 한 차에서 90분간의 대화를 나누면서 양국 간의 친밀감을 분명하게 드러냄.
 - o 파호로 슬로베니아 대통령은 행사 후 기자 간담회에서 “NATO와 EU 회원국인 슬로베니아는 러시아와 서로 간섭하지 않고 거리를 유지해왔지만, 심각한 경제적 위기 앞에서 이제는 상호 간 유대의 다리를 다시 이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

2 원인과 분석

이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슬로베니아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EU 제재와 NATO 압박을 풀기 위한 ‘소프트 전략의 출발’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 이번 푸틴 대통령의 슬로베니아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가능
 - o 하나는 러시아를 향한 EU 제재를 푸는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임.
 - o 두 번째는 동유럽 국가 사이에서 EU와 NATO의 균열을 보다 가시화시킬 수 있다는 점
-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합병한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EU의 28개 회

원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시작


- 지난 7월 1일,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 의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2017년 1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안을 의결
- 푸틴 대통령이 지난 5월에 방문한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EU와 NATO 회원국인 슬로베니아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다른 동유럽국가와 달리, EU의 러시아 제재와 러시아를 겨냥한 NATO의 포위 전략에 회의적 시각을 지님.
- 푸틴 대통령의 이번 슬로베니아 방문은 러시아가 이를 지렛대 삼아 EU, NATO와의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이해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문 답례로 보여 준 슬로베니아의 지지는 오늘날 전개 중인 다양한 세계 경제 변동과 국제 정치 변수 앞에서 슬로베니아가 EU, NATO 내부의 단결보다는 국익 우선과 국민 여론을 앞세워 러시아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됨.

EU를 향한 슬로베니아의 실망과 불만의 확대가 이번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불러왔다고 분석할 수 있음.

- 2007년 유로존(Eurozone)에 가입한 슬로베니아는 얼마 뒤인 2009년 유로존 위기를 통해 심각한 구조조정과 경제 침체를 맞이해야 했음.
- 슬로베니아 국민은 당시 유로존의 위기 속에서도 자국 정부가 EU로의 경제 주권 상실 속에서 자국의 현실에 맞는 강력한 경제 부흥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비판
 - 특히 공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강요로 대량 실업 사태 및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초래되었다고 비판
- 이러한 슬로베니아 국민의 불만은 지난 7월 6일, 슬로베니아 경찰이 유럽중앙은행 관할 하에 있는 중앙은행을 압수 수색해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감사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짐.
 - 이에 대해 유럽중앙은행은 이러한 조치가 EU 규정을 어긴 불법 침입이라며 비판
 - EU 법에 따라 보호받고 면책 권한이 있는 유럽중앙은행의 정보를 불법으로 가져간 것을 슬로베니아 정부가 즉각 사과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
- 2015년 이후 보다 확대된 시리아 등 중동 난민 문제 해결에 있어, EU 수용 정책의 한계점과 문제점이 드러남.

- 슬로베니아는 지난 몇 년 동안 발칸반도를 비롯해 다른 동유럽 국가들처럼 대량 난민 문제로 큰 사회적 어려움을 맞이함.
 - 국민들 사이에서는 EU 내 회원국의 상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잣대로 기준점을 그어 난민 수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불만이 확대
 - 난민 수용에 가장 적극적인 독일의 경우, 전체 인구 중 이민자 출신 비율이 약 12%에 달하는 미국에 버금가는 이민자 국가로 난민 수용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실업률 또한 4.3%(2016년 2월 기준/슬로베니아 8.2%)로 낮은 수준임.
 - 더불어 독일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난민 유입을 통한 인력 보충 필요성이 높은 편이지만, 슬로베니아 등 다른 동유럽 국가의 상황은 이와 매우 상이함.
- 브렉시트 해결 실패로 인한 EU 내 균열이 보다 가중되고 있고,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EU 탈퇴 여론 또한 확대되는 중.
 - EU의 일방적 경제 개혁 드라이브에 불만이 많은 남부 유럽에 이어, 오스트리아와 체코 등에서도 브렉시트 여파로 인한 탈퇴 여론이 보다 확대되고 있음.
 - 사회주의 체제로부터의 전환가 구(舊) 유고슬라비아 연방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주권의 맛’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한 슬로베니아 또한 EU의 계속되는 간섭과 경제 개혁 및 구조조정 압력에 대해 강한 거부감이 확산 중임.

3 **전망과 시사점**

 **향후 러시아는 그동안 EU와 NATO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하던 ‘하드 전략(Hard Strategy)’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자국을 향한 EU의 제재를 풀게 하고 NATO와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EU와 NATO의 균열을 노리는 ‘소프트 전략(Soft Strategy)’에 보다 치중할 것으로 예측. 이에 따른 향후 상황들은 아래와 같이 전망할 수 있음.**

- 첫 번째, ‘치킨 게임(Chicken Game)’처럼 현재 동유럽을 둘러싼 EU, NATO와 러시아 간 긴장 확대는 회원국 내 ‘존속과 정체성 위기 논쟁’을 보다 가속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러시아와 직접 이해가 부딪치지 않는 일부 회원국을 중심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분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커질 것
 - 실제로 NATO를 ‘글로벌 안보 기구’로 확대 발전시키고자 하는 미국, 영국과 달리, 그리스와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러시아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 오히려 EU와 유럽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우려
 - 이들은 NATO가 유럽과 EU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러시아와의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

- 두 번째 난제로는 러시아와의 군사적, 경제적 긴장 속에 누가 NATO 증대를 위한 병력과 자금을 댈 것이며, 더불어 러시아를 겨냥한 EU 제재로 발생한 회원국 내 경제 손실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 고민이 있음.
- 실제로 NATO 회원국은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쓸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2016년 기준으로 미국은 3.61%, 그리스 2.38%, 영국 2.21%, 에스토니아 2.16%, 폴란드 2%로 이들 5개국만이 NATO 가이드라인인 2%를 넘겼음.
 - 프랑스(1.78%)를 비롯해 나머지 회원국은 여전히 2% 아래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추정
 - 이는 유럽 경제의 어려움과는 별도로 미국과 일부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상당수 회원국이 러시아를 큰 위협으로 보지 않고 있음을 의미
- 세 번째로는 우크라이나의 미래와 브렉시트의 문제가 있음.
 - 현재 우크라이나는 NATO와 EU 가입을 강력히 희망하지만, NATO와 EU 또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전략적 이해 지역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가 지속될수록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완충지대 역할에만 충실해 주기를 바라는 여론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
- EU와 NATO 회원국 가운데 영국은 미국을 지원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임.
 - 브렉시트 이후라도 영국은 NATO 회원국으로 남을 것이며, 미국의 정책을 강력히 지지하기를 희망하지만 향후 안보 동맹의 균열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
 - 브렉시트는 ‘러시아 대외 정책의 큰 승리’라고 평가받고 있음.

NATO와 EU의 균열을 노리는 러시아의 소프트 전략 확대가 주는 시사점

- 8월 9일, 러시아와 터키 간 관계 정상화 합의로 EU와 NATO의 고민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짐.
 - 러시아는 터키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터키 또한 흑해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¹⁾를 전격 재추진
 - 터키는 러시아 에너지 업체로부터 최대 15%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받고, 대량으로 가금류와 수산물을 수출했던 경제 교류가 재개될 것으로 예측²⁾
- NATO 회원국인 터키와 러시아 간 합의는 기존 동유럽 외에도 NATO의 균열을 향한 러시아 소프트

1) 블루 스트림(Blue Stream) 계획

2) 러시아는 흑해를 관통해 발칸반도의 불가리아를 거쳐 남부 유럽을 연결한 가스관인 ‘사우스 스트림(South Stream)’ 계획을 추진해 왔었음. 하지만, 2014년 크림반도 점령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EU의 제재와 반대가 확대되고, 이에 불가리아 등 일부 관련 국가들이 동조하자 이 계획을 철회함. 러시아는 이를 대신해 2014년 12월 1일 흑해를 통과해 터키를 가스 공급의 허브로 개발하기로 한 ‘블루 스트림’ 계획을 추진했음. 당시 터키는 EU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아 이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아 왔으며 ‘블루 스트림’ 계획을 통해 에너지 허브를 노려 왔었음.

트 외교 전략의 승리로 비쳐짐.

- 특히 유럽 난민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터키를 활용해 러시아는 EU를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음.
- 실제로 터키는 EU와의 난민 송환협정 시 약속한 터키인의 EU 무비자 혜택 일정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을 경우 협정을 지킬 수 없음을 EU에 경고

- EU, NATO와 러시아 간 갈등은 한반도 사드³⁾ 문제 해결의 연장 선상에서 이해가 필요

- NATO와 러시아 간 7월 13일 회담이 결렬된 이후, 동유럽을 둘러싼 군사력 증강 배치와 양 진영 간 대립 격화는 신냉전 상황의 전반적 확대를 의미하는 ‘냉전 2.0’의 현실화 우려로 이어짐.
- 이는 국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바라지 않는 상황임.

- 만약 ‘한반도 사드’가 완공될 경우,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MD 시스템은 현재 동유럽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유럽 방어체계처럼 육상과 해상에 걸쳐 보다 높은 차원의 방어망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유럽에서의 NATO, EU와 러시아 간 긴장 관계의 전개 상황에 따라 아시아에서의 미국, 일본과 중국 간 갈등 및 군비 증강, 무력시위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
- NATO, EU와 러시아 간 갈등 구도 진행과 그 해결 방안 모색에 대한 선형적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전략적 지혜로움이 필요한 시점

- 동유럽을 둘러싼 EU, NATO와 러시아 간의 신냉전 구도는 이를 벗어나기 위한 러시아의 소프트 전략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가 주요 관건이 될 것

- 러시아를 향한 EU의 제재 연장과 NATO의 포위망 전략 속에 향후 EU와 NATO 내 균열이 발생할지, 아니면 더욱 견고한 틀이 형성될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EMERiCs**

출처

김철민, “EU 난민 위기에 대한 중동부유럽의 관점과 전략”. 『EU연구』No. 43,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6. 06
 Euro news, “Putin visits Slovenia: Past and present ties on agenda with EU member state”. 2016. 7. 30
<http://bit.ly/2dcgCAS>
 NATO OTAN, “Defence Expenditures of NATO Countries (2009-2016)”. 2016. 7. 4, <http://bit.ly/29gMUI7>
 “NATO Secretary General welcomes frank and open discussions in NATO-Russia Council”, 2016. 7. 13,
<http://bit.ly/2cqagz5>
 The Straits Times, “Turkey and Russia agree to reset ties”. 2016. 8. 11, <http://bit.ly/2aQnuac>
 Voice of America, “ECB Threatens Legal Action Against Slovenia After Police Raid”. 2016. 7. 6,
<http://bit.ly/2ciHBsd>

3)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